

# 예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12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8
IV. 국제신인도 .....	11
V. 종합의견 .....	1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I. 일반개황

면적	528천 km <sup>2</sup>	G D P	299억 달러(2009년)
인구	23.6백만 명(2009년)	1 인 당 G D P	1,269 달러(2009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Yemeni Riyal(YR)
대외정책	친아랍, 친미 외교노선	환 율(달 러 당)	202.85(2009년)

- 홍해 입구와 아라비아 서남단에 위치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오만과 접경하고 있는 예멘은 1990년 회교주의 북예멘과 사회주의 남예멘이 경제협력 및 동서진영의 화해분위기 조성 등에 힘입어 통일된 이래 Saleh 대통령의 강력한 권력기반 아래 장기 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인프라 환경이 열악하고 1인당 GDP가 1,269 달러에 불과한 중동 지역의 빈곤국이며, 과중한 외채부담으로 수차례의 리스케줄링을 경험한 바 있음.
- 최근 AQAP의 테러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치안 불안이 심화 되었으며, 국제테러조직인 알카에다의 새 근거지로 부상하였음.
- 주요 외화소득원은 석유수출이며, 1994년 이후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 공급국으로 부상하였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sup>e</sup>	2010 <sup>f</sup>
경제성장률	3.2	3.5	3.2	3.8	6.2
재정수지/GDP	1.0	-5.9	-1.1	-9.4	-5.1
소비자물가상승률	10.8	7.9	19.0	3.7	11.5

자료: IMF, EIU

#### □ 경제성장세 회복 전망

- 2006-08년에는 산유량 감소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감소와 투자위축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3%대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2009년에는 국제 원조의 지원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3.8%로 소폭 호전되었음.
- 2010년에는 미국 등의 국제 원조 확대와 YLNG 등 신규 가스전의 생산 증대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은 6.2%를 기록할 전망이다.

#### □ 재정수지 적자기조 지속

- 재정수지는 동국의 주요 재정 수입원인 석유 생산량 감소의 영향으로 적자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석유가 재정수입의 약 70%를 차지).
- 2006년에는 석유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및 판매세 도입의 영향으로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기도 하였으나, 정부의 각종 개혁추진 및 인프라 확충 노력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재정수지가 만성적 적자기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2009년에는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알카에다 무장세력 확대 로 인한 투자 유치 실패와 석유 보조금 지출로 재정수지 적자 폭이 GDP 대비 -9.7%로 확대되었으나, 2010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및 석유 수출 증가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 폭은 -5.1%로 감소할 전망이다.

#### □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

- 2005-06년 소비자물가는 국제 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정부의 석유 보조금 폐지 및 판매세 도입 정책, 리얄화 약세에 따른 수입 가격 인상 등이 물가불안 요인을 가중시켜,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07년에는 중앙은행의 긴축통화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가 다소 완화되기도 하였으나, 2008년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다시 20% 가까이 반등하였음.
-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와 국제 상품가격이 하락세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수준으로 완화되었으나, 2010년에는 국제 상품 가격 상승 및 리얄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5%로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 경제구조정책

### [구조적 취약성]

#### □ 석유·농업에 편중된 취약한 경제구조

- 석유산업 및 농업은 예멘의 대표 산업임. 2007년 기준, 석유가 총 수출액의 85%, 정부 재정수입의 71%를 차지하는 등 석유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제유가 등락이 국가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

\* 예멘의 일일 평균 원유 생산량은 287천 배럴('09년 기준)로 추산되며, 이는 인근 산유국들에 비해 취약한 편임(대부분의 석유를 남부 Masila 유전, 북부 Marib 유전에서 생산). 현 추이로는 향후 12년 내에 석유 생산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국내 경제에서 농업이 12.4%를 차지('07년 기준)하고 있으나, 토양 침식, 사막화, 산림 파괴 및 고질적인 용수 부족 등의 문제로 농업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국민의 45.2%가 1일 2달러 이하로 살아가고 있어, 농업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비료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동국의 경작가능 토지는 주변국의 25%에 불과한 실정임.

## □ 열악한 인프라 환경

- 2010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인간개발지수'에 따르면 동국은 총 169개국 중 133위의 낮은 수준을 차지하였으며, 도로, 식수, 보건 등 사회 환경 전반에 걸쳐 매우 열악한 구조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상수도 및 공공수도 등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급수설비의 용수 제공률은 2008년 기준 전체 국민의 57.0%에 불과하며, 이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평균인 80.1%에 비해 현격히 열악한 수치임. 또한 동국의 전기 공급률은 40%로 중동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동국의 도로·운송 시스템은 매우 취약한 상태로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남부지방의 황폐가 매우 심각함. 현재 정부가 주요 간선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중이나, 이를 위한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동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남부지방의 주요 항구 도시인 Aden과 북부지방의 Amran 간 고속도로가 연결될 경우, 남부 연안과 북부 사우디아라비아를 잇는 국경 간 이동이 절반 가까이 단축되는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통신 부문에서는 2008년 기준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가 1.6명에 불과하고, 100명당 전화선이 4.9개만 설치되어 있는 등 중동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이를 위해 정부가 FDI 유치율 목표 50만개의 전화선 및 인터넷 설치를 허가하고, IT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나 아직까지 성과는 미미한 실정임.

## [성장 잠재력]

### □ 취약한 석유자원 및 천연가스 생산 개시

#### <석유>

- 1984년 Marib 유전 발견 이후 1987년부터 원유생산이 시작된 이래 1993년 Canadian Occidental(CANOXY)에 의해 Masila 유전이 추가 개발됨으로써 동국의 원유 생산량이 급증하였음. 동국의 석유생산량은 2009년 기준 일산 287천 배럴로 국가재정의 주 수입원임. 확인 매장량은 약 27억 배럴로 추산되고 있으며, 주로 Marib과 Masila 2개 유전에서 생산되고 있음.
- 예멘 정부는 지난 2000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국경합의에 의해 석유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추가 유전을 탐사 중이나, 아직까지 신규 유전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 <천연가스>

- 동국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17.3조 입방피트로 추산되고 있으며, 향후 25년간 연간 6.2백만 톤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음.

\* 인근 국가의 천연가스 매장량(입방피트, '08년 기준) : 이란(1,045.7조), 카타르(899.3조), 사우디(267.3조), UAE(227.1조), 이라크(111.9조)

- 또한 2005년 7월 의회가 Yemen LNG 프로젝트를 승인, 2009년 10월부터 생산이 개시되어 연간 약 6.7백만 톤의 LNG를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천연가스 산업이 향후 원유수입을 보완할 대체 수입원으로 주목 받고 있음.

## [정책성과]

### □ 부진한 경제개혁

- 동국 정부는 IMF의 자문 아래 PRGF(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프로그램을 이행해 왔으나, IMF가 권고해오던 공기업 민영화, 보조금 축소 등의 추진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자 2002년 중단된 바 있음.

- 2006년에는 제3차 5개년(2006-2010)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천연가스, 농업, 어업 및 관광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음. 이에 대한 성과로 Yemen LNG 프로젝트 추진을 들 수 있으나, 동국의 편중된 경제 구조의 다각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혁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임.
- 2010년 7월 IMF는 극심한 빈곤과 고질적인 용수 부족,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동국에 3.7억 달러 상당의 확장 차관(Extended Credit Facility: ECF)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국은 이에 따라 3년 동안 긴축 재정 및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거시 경제 안정을 위한 IMF와의 약정을 이행하여야 함.

### 3. 대외거래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sup>e</sup>	2010 <sup>f</sup>
경 상 수 지	206	-1,508	-1,251	-2,328	-2,098
경 상 수 지 / G D P	0.9	-5.8	-4.0	-7.8	-6.5
상 품 수 지	1,390	-441	-357	-1,706	-765
수 출	7,316	7,050	8,977	5,812	7,585
수 입	5,926	7,490	9,334	7,518	8,350
외 환 보 유 액	7,504	7,715	8,111	6,622	5,744
총 외 채 잔 액	5,644	6,089	6,258	6,552	7,147
총 외 채 잔 액 / GDP	24.7	23.6	20.2	21.9	22.1
D . S . R .	3.5	4.8	4.3	3.4	3.7

자료: IMF, EIU

##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전환

- 상품수지는 2006년까지 고유가에 기인한 석유수출 확대에 힘입어 흑자기조를 지속해 왔으나, 2007년부터 석유 수출 증가세 둔화, 내수경기 회복 및 리알화 약세에 따른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품수지가 적자 전환 후 적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 경상수지 또한 상품수지 적자 전환,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의 적자폭 확대의 영향으로 2007년 적자로 전환한 이래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음.
- 2010년에는 석유 및 가스 수출 증가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는 적자규모는 각각 7.7억 달러 및 21.0억 달러로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 \* 원유 일산량: 306천 배럴('08) → 287천 배럴('09) → 275천 배럴('10)
  - \* 원유 수출: 76억 달러('08) → 42억 달러('09) → 49억 달러('10)

## [외채상환능력]

### □ 외채 구조 양호

- 동국의 외환보유액은 풍부한 오일머니에 힘입어 2008년말 기준 81.1억 달러에 달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석유 수출 감소 및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원유수입 감소로 2010년에는 57억 달러로 감소할 전망이다.
- 외채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예멘 정부의 지속적인 채무 재조정 노력과 GDP의 지속적인 증대로 인해 2005년 GDP의 33.9%에 달하던 외채 비중은 2009년에는 21.9%까지 감소하였음.
- D.S.R.도 5% 미만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대외 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 GDP: 310억 달러('08) → 299억 달러('09) → 323억 달러('10)
  - \* 총 외채잔액/GDP: 20.2%('08) → 21.9%('09) → 22.1%('10)
  - \* 외채상환비율(D.S.R.): 4.3%('08) → 3.4%('09) → 3.7%('10)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 및 국제관계

##### [정치 안정]

##### □ 살레(Saleh) 대통령의 장기집권체제 지속

- 1990년 5월, 회교주의 성향의 북예멘과 사회주의 체제의 남예멘이 동서 화해 분위기 속에서 경제난 타개를 위해 통합에 합의하여 예멘공화국(Republic of Yemen)을 선포, 1993년 총선을 통해 연립내각을 출범시킨 바 있음.
- Ali Abdullah Saleh 대통령의 굳건한 정치적 기반 아래 국내 정치는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왔으나, 2009년 7월 정부군과 분리주의 세력 간에 제6차 내전이 발발한 이래 정정 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최근 Saleh 정부의 입지가 다소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 '93년, Saleh 대통령 당선
- '94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권한 강화(5인 대통령위원회 제도를 폐지, 대통령 임기 5년, 중임 가능)
- '97년, 총선을 통해 일반국민의회당(GPC)에 의한 단독정부 구성
- '99년, 대통령 선거에서 Saleh 대통령이 96% 이상의 지지를 얻어 정치 기반을 강화
- '01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7년으로 연장하는 등 장기집권 체제 기반 조성
- '06년, 대통령 선거에서 Saleh 대통령의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

##### □ 정부군과 남예멘 분리주의 세력 간 무력충돌 장기화

- 1990년 남북예멘 통일 이후 북부 세력인 여당(General People's Congress, GPC)이 현재까지 장기 집권함에 따라, 이에 불만을 품은 남부세력의 저항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음. 1994년 공식적으로 종식되었던 두 세력 간의 내전이 2004년 재발한 데 이어, 2009년 7월에는 수니파인 정부군과 시아파인 알-후티 반군과의 내전이 발발하여 심각한 정국불안을 야기하

고 있음.

- 이에 Saleh 정권은 적극적인 반군토벌 작전으로 대응하였으나, 거듭된 군사작전 실패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조건부 휴전 제의와 대화의 노력도 잇따라 실패하여 양 세력 간 분쟁은 보다 폭력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음. 그 과정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5만 여명 이상의 실향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또한 2009년 4월부터 남북분리를 주장하는 민간 시위가 남예멘 전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 알카에다 무장세력 활성화에 따른 정치적 불안 심화

- 2009년 1월 중앙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았던 아라비안 내륙지역에 알카에다 사우디아라비아 지부와 예멘 지부를 통합한 아라비아반도 알카에다(Al-Qaida in the Arabian Peninsula: AQAP)가 출범하면서 동국의 정치적 혼란이 크게 증가하였음.
- 정신적 지도자인 안와르 알-올라키의 지도로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AQAP는 2010년 10월 ‘아텐 아비안’군을 창설하여 조직을 체계화시켰으며, 최근 몇 차례 정부군과 충돌이 반복되어 예멘 정부와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
- 2010년 10월 예멘 주재 영국대사관 폭탄 테러, 오스트리아 가스업체 테러, 예멘발 소포폭탄 테러 등 AQAP와 연계된 다수의 테러사건 발생하면서 AQAP는 국제사회가 가장 주시하는 테러조직으로 급부상하였음.
- 동국이 국제테러조직인 알카에다의 새로운 근거지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은 2010년 예멘 정부군에 대 테러전 차원에서 1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하며 예멘 정부와 공동으로 알카에다 소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제관계]

#### □ GCC 주변국가와의 점진적인 관계 개선

- 동국이 지난 1991년 1차 걸프전에서 이라크를 지지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인근 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된 바 있으나, 2000년 사우디아와의 국경협정 체결, 쿠웨이트 내 예멘 대사관 설치 등을 통해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해 왔음.
- 사우디아라비아 등 GCC 주변국 또한 2006년 11월, 런던에서 개최된 donor conference에서 예멘에 대해 약 27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지원하는 데에 합의하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옴. 특히 2009년 8월 AQAP 세력의 사우디 정부인사 암살시도가 발생한 이후로 안보 분야에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이 보다 긴밀해지고 있음.

#### □ 지속되는 군사 활동 및 정정불안으로 서방과의 관계 악화 조짐

- 예멘 정부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 관련 혐의자 및 과격세력을 체포하는 등 미국의 대 테러 전쟁에 적극 협조하며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음.
- 그러나 2008년 9월, 알카에다 관련 세력의 예멘 주재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 2010년 예멘 주재 영국 대사관 폭탄 테러, 예멘 주재 오스트리아 가스업체 무장 테러, 예멘발 소포폭탄 테러 등 미국 및 서방국가에 대한 무장 세력의 저항이 지속되면서, 서방국가들과의 경제적, 외교적 협력 관계가 다소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 사회 및 소요사태

#### □ 높은 실업률

- 동국의 실업률은 약 1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노동 인력이 미숙련 노동자로 농업에 편중되어 있어 비농업 부문으로의 숙련된 인력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인구 또한 연평균 3%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동국의 현 실업률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인구 추이: 22.3백만 명('07) → 22.9백만 명('08) → 23.6백만 명('09)

## □ 치안불안 양상 지속

- 도시지역은 실질적으로 일반국민의회당(GPC)이 지배하고 있으나, 농촌 지역의 경우, 전통 부족들의 자치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고 있음. 특히, 지방의 일부 부족은 각종 이슬람 무장 단체를 지원하여 치안불안이 계속되고 있음.
- 알카에다 가담 혐의자 색출 등 국내 치안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QAP 세력은 예멘 부족들이 운영하는 각종 이슬람 교육기관에 침투하여 활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부족에서 이들에 대한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무장단체 가담자 색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예멘은 총기가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총기류가 테러 활동에 사용되는 등 치안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기관명	현행	종전
OECD	7등급 (2010.4)	6등급 (2009.4)
S&P	-	-
Moody's	-	-
Fitch	-	-

###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 미국 EXIM : 중단기 인수가능
- \* 영국 ECGD : 중단기 인수가능
- \* 독일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3. 외채상환태도

#### □ 외채상환부담 감소

- 동국은 지난 1996년 파리클럽으로부터 대상채무의 67%, 1997년 러시아로부터 대상채무의 80%를 각각 탕감 받아, 약 60억 달러의 채무경감 효과가 발생 하였음. 또한 2001년에는 파리클럽과 2.5억 달러의 외채 탕감 및 3.95억 달러의 리스케줄링에 합의한 바 있음.
- 이와 같은 정부의 지속적인 채무 재조정 노력 결과, 2005년에는 자체적인 외채상환이 가능한 국가로 분류되어 HIPC 대상 국가에서 제외되었음.

###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예멘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1~10월)	주요품목
수 출	123	183	125	177	석유제품, 자동차
수 입	255	64	53	309	천연가스, 알루미늄
합 계	378	247	178	486	

\*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 국교수립 : 1985년 8월 22일 (북한과는 1963. 3. 9 수교)
- 주요협정 :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협정('09)
- 2010년 10월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약 5억 달러에 달함.
  - 수출은 석유제품, 자동차를 중심으로 1억 7천 7백만 달러를 기록, 수입은 천연가스와 알루미늄을 중심으로 약 3억 9백만 달러를 기록
- 해외직접투자(2010년 9월말 누계, 총 투자 기준) : 10건, 1,290,256천 달러

## V. 종합의견

- 예멘 경제는 국제유가 상승세에 힘입어 2005년 이후 평균 3%대의 경제성장을 시현해왔으나, 지속되는 석유 생산량 감소와 석유산업 및 농업에 편중된 취약한 경제구조 문제에 직면해 있어, 향후 석유 고갈에 대비한 정부의 비석유산업 육성정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2010년에는 미국 등의 국제 원조 확대와 YLNG 등 신규 가스전의 생산증대 등의 영향으로 6.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Saleh 대통령의 굳건한 정치적 기반 및 높은 국민 지지도에 힘입어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국내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농촌지역의 경우 전통 부족들이 자치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고 있으며, 분리주의 세력과의 무력충돌이 심화되고 있어, 동국 내 치안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알카에다와 관련된 무장 세력의 테러활동이 활성화되어 AQAP가 국제사회가 가장 주시하는 테러조직으로 급부상하였으며, 동국은 알카에다의 새로운 근거지로 부상하고 있어 불안요소로 남아 있음.

- 수차례의 리스케줄링 결과 자체적인 외채상황이 가능한 국가로 분류되어 지난 2005년 HIPC에서 제외된 바 있으며, 2009년말 외채잔액은 66억 달러 (GDP의 21.9%), D.S.R.은 3.4%로 양호한 외채상황을 유지하고 있음.

조사역 이현정 (☎02-3779-5651)  
E-mail : lhj0316@koreaexim.go.kr